



가정상담

법률구조를 통한
법률복지사회 구현
우리 사회의
모든 가정과 함께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ISSN1227-7568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트위터▷ <http://www.twitter.com/LegalAidCenter>



본소는 지난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에 걸쳐 양재동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제44회 “나, 너, 그리고 우리 - 행복찾기 부부캠프” 를 진행하였다. (관련내용 13면)



본소 교육부는 비혼모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강원도 옥계 한국여성수원원에서 여름캠프를 진행하였다. (관련내용 17면)

4• 이 달의 메시지

6• 특집 | 심포지엄 가정폭력처벌법의 점검 및 과제 ❷

13• 가정폭력상담실

17• 교육부

24• 인터넷 상담

25• 좋은 책

펫로스

반려동물의 죽음 -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26• 결혼과 인생(174) 영화이야기

크리피 : 일가족 연쇄 실종 사건 _ 김용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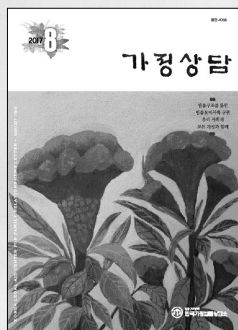
28• 법률구조체험교육 후기

30• 상담소 소식

32• 지부 소식

34• 상담통계

35• 백인변호사단 소송구조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이 달의 메시지



‘가정폭력특별법’을 생각하며 ②

..... 멀지만 가야할 길, 가정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1998년 7월 가정폭력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상담소는 그 해 8월부터 서울가정법원의 가정보호사건 행위자 상담 수탁기관으로 지정되었고 그 후 서부지검, 고양지원, 서울중앙지검 등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로 지정되면서 2016년 말까지 1,400여건이 넘는 가정보호사건 상담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인 절차가 이루어진 것만을 통계 낸 것이고, 그 밖에 상담소에서 이루어지는 가족문제 상담에 있어 가정파탄의 주된 요인으로 보고되는 것이 폭력인 것을 보면 가정폭력은 여전히 우리 사회, 우리 가정의 주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일찍이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을 포함한 가정문제를 가장 먼저 공론의 장으로 끌어낸 상담소는 이에 관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함으로써 가정폭력특별법의 제정을 이끌어내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그 법이 시행되고 있는 지금도 엄선되고 차별화된 가정폭력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행위자의 성행 교정과 피해자의 의식화를 통해 가정의 회복과 유지 그리고 가족구성원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가정폭력의 완전한 근절과 예방이 얼마나 어렵고 험난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가정폭력사건에 대해 심층적인 자료가 축적되고 있는 1,400여건의 가정보호사건 파일을 들여다보면, 초기에는 이른바 ‘매 맞는 아내’로 표현되던 가정폭력이 주를 이루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가족 구성원 간 다양한 폭력이 그 양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상담소의 매년 통계를 살펴보면 해마다 가정보호사건에서 부부 간 상호폭력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혼인 기간 내내 피해자였던 아내이자 며느리가 노년기에 들어서 늙고 힘이 없어진 시모와 남편에 대한 폭력의 행위자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도 증가하고 있는 양상인데 이때 자녀의 부모 폭력은 성인자녀와 미성년자녀로 나누어 상담을 진행할 만큼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저는 20년 전 상담소에 위탁되었던 초기 상담 사례를 기억합니다. 40대 후반의 부부는 당시 IMF 경제 위기와 맞물려 일용직 노동자였던 남편의 경제력이 약화되면서, 가부장적 이념, 올바른 소통의 부재 등이 폭력으로 이어진 전형적인 경우였습니다. 상담 과정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된 부부, 특히 평생 처음으로 가족에게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폭력이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행위자 남편은 수차례 ‘가정폭력법이 고맙고, 상담소가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요즘 상담을 해보면 상황은 훨씬 복잡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가 얼마나 쉽고 단순한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젊은 부부들은 상호폭력을 서슴지 않는 경우가 많고, 상담 과정에서 보면 혼한 사례는 아니지만 학대하는 남편에게서 벗어나고자 교묘하게 폭력을 유발하는 아내도 있습니다.

호주제 폐지 등 그간의 가족법개정운동을 통해 가정 내에서 가족구성원들 사이에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의한 억압과 구속은 많이 사라졌지만 사회적 관습과 오랜 군사독재의 영향 등으로 학교폭력, 군대폭력 등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하고 있는 폭력성은 여전하고 이 같은 사회 상황은 여전히 우리 사회와 가정 내에서의 폭력을 근절시키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역설적이게도 그 원인이 가정폭력에서 유래된 것임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가정폭력과 관련 그 예방과 근절에 대해 접근방법에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특별법을 보다 완벽하게 보완해 가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만의 독특한 가정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살펴 그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문화적 배경이 다른 외국의 사례를 무작정 참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가정폭력특별법은 20년 동안 20여 번 개정되었는데 이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나름대로 최선의 방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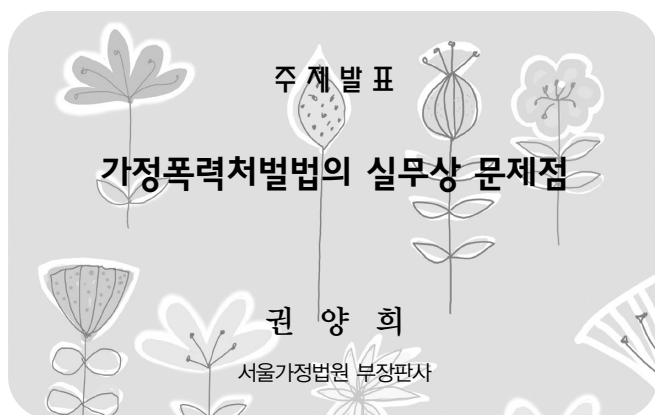
아직은 멀어 보이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가장 근원적인 것이 ‘폭력 없는 가정’이 아닐까 합니다. 사회의 기초단위, 개인의 근원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가정과 사회의 문제, 특히 우리 사회와 가정의 특수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

집

2017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심포지엄 II ②*

가정폭력특별법 제정 20년 기념 가정폭력처벌법의 점검 및 과제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방과 방지의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처벌절차의 특례 규정
 - 2011. 7. 25. 피해자보호명령 절차가 추가됨
 -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통한 가정의 평화와 안정 회복
 -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

I. 가정보호재판실무 개관

특례법 입법 경위¹⁾

- 과거 가정폭력 방지나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부존재

II.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 · 적용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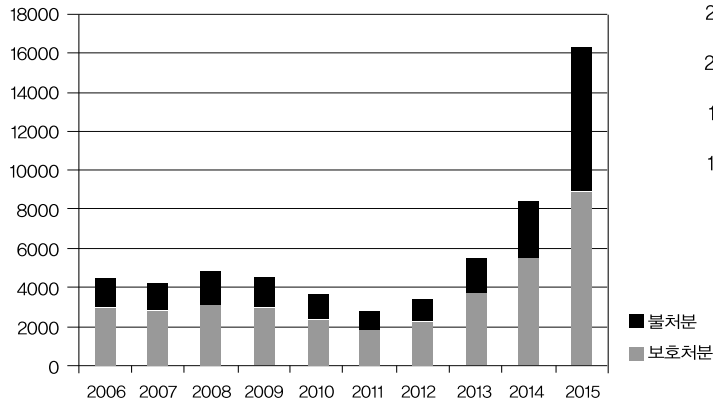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절차의 특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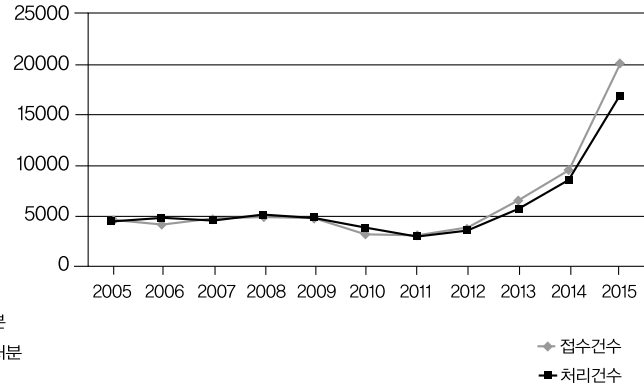
* 지난 6월 23일 열린 본소의 2017년 두 번째 심포지엄으로, 가정폭력특별법 제정 20년을 맞아 법안의 실무상 문제점과 과제를 점검하였다. 이번 호에는 이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본소의 관련 조사 결과 발표 내용을 요약하여 게재한다. 전문은 본소 홈페이지 <http://lawhome.or.kr>에서 볼 수 있다.

1) 가정보호절차는 홈페이지 참조

가정보호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가정보호사건 처분 현황



- 고소특례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가능
-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 특례

행위자의 환경조정과 성행교정

- 보호처분의 실효성에 대한 고민 필요

가정의 평화와 안정

- 가정폭력처벌법 제정 당시의 주 목적

가정폭력처벌법 제1조에서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한다는 목적으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보호에 소홀하다는 비판 아래, 가정의 평화와 안정 회복의 목적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보호처분을 근간으로 하는 가정폭력처벌법의 취지상 가정의 평화와 안정의 회복이라는 가치 역시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함.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보호(2002. 12. 18. 개정당시 추가)

적용범위 - 가정구성원

배우자(사실혼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사실혼 관계 포함

- 배우자였던 사람을 제외해야 한다는 견해
 - 오로지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 것만이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이 아님. 보호처분 또는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현실적 필요 있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

- 사실상의 양친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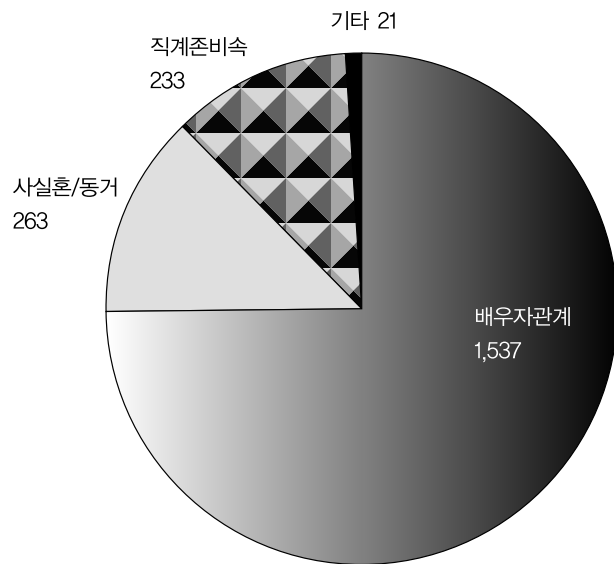
계부모와 자녀, 적모서자 관계

동거하는 친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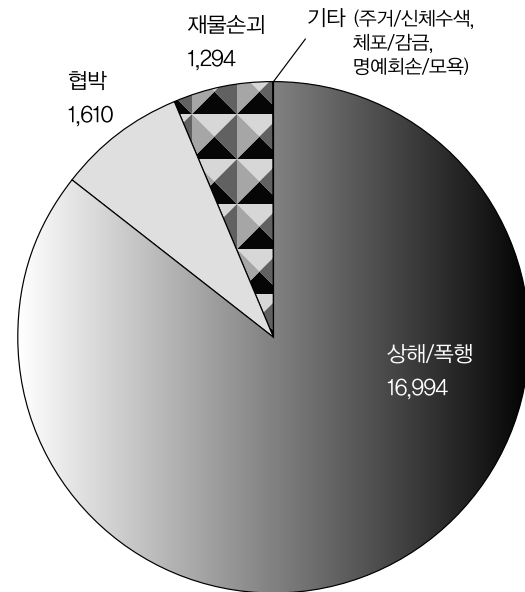
- 형제자매 등

가정보호사건의 양상

배우자 및 사실혼·동거관계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가정보호범죄의 태양



적용범위 - 가정폭력범죄

1997. 제정 당시

- (존속, 중)상해, (존속, 특수)폭행, (존속)유기, 영아유기, (존속)학대, 아동학사죄
- (존속, 중, 특수)체포, (존속, 중, 특수)감금, (존속, 특수)협박,
- 명예훼손, 사자의 명예훼손,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 주거·신체 수색의 죄
- 강요, 공갈, 재물손괴

2012. 개정 당시

-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폭행, 존속폭행, 협박, 존속협박, 명예훼손 - 반의사불벌죄, 모욕 - 친고죄

- 2012. 개정 당시 형법상의 강간과 추행의 죄와 그와 관련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가 포함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까지

단순 폭행이나 협박이 반의사불벌죄

- 대부분이 처벌불원 하는 사건. 접근금지 제외한 보호처분의 경우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보호처분취소의 경우 공소권없음으로 종결

가정폭력처벌법 대상 범죄

- 대상범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와 형사처벌과의 형평성 반대하는 견해
- 2012. 개정 당시 추가된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경우 형사처벌과 형평에 문제가 있음.
- 한편 살인미수와 같은 경우 피해자보호의 필요가 있음에도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할 수 없는 한계.
-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이 가능한 범죄와 피해자보호명령이 가능한 범죄를 나누어 규정함으로써 형사 처벌과의 형평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 제안함.

III. 임시조치

임시조치(법 29조)

	처 분	기간	불이행
1호	퇴거 등 격리	2개월 (2회 연장 /총 6개월)	500만원 이하 과태료
2호	100m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4호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1개월 (1회 연장/총 2개월)	
5호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검사는 1호-3호 청구 가능 : 임시조치위반, 재발우려의 경우 5호 청구 가능

임시조치의 문제점

- 임시조치위반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실효성 없음.
- 특히 검사가 청구한 임시조치 위반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더 급박하고 중한 사례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위반 사실을 발견하더라도 법원에서 한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와 달리 구치소 유치가 불가함.
- 임시조치는 보호처분을 전제로 한 것으로, 검사가 사건이 더 중하다고 보아 행위자를 기소하는 경우에도 임시조치는 효력을 잃음.
 - 피해자 보호에 문제.

IV. 보호처분

보호처분(법 40조)

	처 분	기간	불이행
1호	접근행위 제한	6월(+6월)	2년 이하의 징역,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2호	전기통신이용 접근행위 제한	6월(+6월)	
3호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6월(+6월)	
4호	사회봉사, 수강명령	200시간 (+200시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호	보호관찰	6월(+6월)	
6호	가정폭력방지법이 정한 보호시설 감호위탁	6월(+6월)	
7호	의료기관에 치료위탁	6월(+6월)	
8호	상담소 등에 상담위탁	6월(+6월)	

- 처분 병과 가능, 1회에 한하여 보호처분의 종류, 기간 변경 가능
- 4호-8호 의견서 보고서 제출

심리절차에서의 문제점

당사자 불출석 문제

- 불출석시 제재
 -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불과
- 동행영장 집행의 어려움

행위자의 저항 및 인식 부족

- 개인적인 가정문제에 국가가 개입한다는 인식
- 다 잊고 잘 살고 있는데 국가가 이혼시키려고 한다고 불만

피해자의 저항 및 인식 부족

- 진술의 번복, 비협조
- 행위자의 성행 개선보다 생업 중시하는 태도
- 피해자 의사 존중의 딜레마

접근금지 등 처분의 문제점

- 접근금지위반의 경우 피해자가 신고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 결국 관할 경찰서에서 집행지휘에 따라 수시로 집행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유일함.

- 보호처분 등 불이행죄로 현행법 체포가 가능한 경우 임에도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아쉬움이 있음.

수강/봉사, 보호관찰, 감호위탁 처분의 문제점

수강

- 직장 등 병행의 어려움, 프로그램 및 대상의 다양화 필요,
- 형식적 순응의 경우 확인의 어려움

사회봉사

- 성행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견해

보호관찰

- 짧은 보호관찰 기간/ 보호관찰관의 업무 과중

감호위탁

- 감호위탁시설의 부재 - 가정폭력 방지법이 정한 감호위탁 시설

실효성없음

- 불이행시 과태료 처분 · 보호처분 취소

-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행위자에 대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집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음(법 44조)

- 조사관으로 하여금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조사관은 법 44조 규정에 의한 지시사항의 이행여부, 수탁기관의 감호상황 또는 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사하여 서면 보고하게 할 수 있음 (가정보호심판규칙 53조)

치료위탁처분의 문제점

수탁기관 지정의 어려움

- 적합한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적 한계

치료위탁 집행의 어려움

- 증상에 대한 인식 부재

집행기관 협조의 어려움

- 거부, 입원 거부의 경우
- 가정보호심판규칙 - 수용할 수 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치료위탁 예산의 부족

- 예산부족으로 국고부담결정 소극적

실효성없음

- 불이행시 과태료 처분 · 보호처분 취소

가정보호심판규칙 상의 관련 규정

- 행위자의 정신질환 · 약물남용 등으로 인하여 치료와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치료위탁처분을 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수용할 수 있다.
- 행위자의 정신질환 · 약물남용 등으로 인하여 의학적인 치료와 요양이 시급히 필요하거나 전문가의 진단소견 또는 의견조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이나 요양소에 위탁할 때에는 행위자를 수탁기관에 수용할 수 있다.
- 임시조치/치료위탁을 함에는 사전에 그 수탁기관의 장에게 도주방지등 행위자를 감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수탁기관의 장은 수용 중인 행위자가 도주하는등 행위자의 신상에 변동을 초래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심판규칙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구 정신보건법)에 명문규정이 없어 어려움이 있음.

- 특히 가정보호(아동보호) 행위자의 경우 병식이 없고, 피해자가 행위자를 입원하는데 협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조치가 필요함.
- 정신건강증진법상 자의 입원/동의 입원/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특별자치 시장 · 특별자치 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 의한 입원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만 규정되어 있음.
- 정신건강증진법상의 규정 필요.

상담위탁처분의 문제점

상담 수탁기관 지정의 어려움

- 적합한 상담기관이 없는 지역적 한계

상담위탁 집행의 어려움

- 형식적 상담 순응의 경우 확인의 어려움
- 상담 불응의 경우 실효성 있는 강제수단이 없음

피해자 협조의 어려움

- 부부상담 거부
- 생계를 우선시하는 태도

상담위탁 예산의 부족

- 예산부족으로 상담의 질 편차

실효성없음

- 불이행시 과태료 처분 · 보호처분 취소

V. 피해자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법 55조의 2)

	보 호 명 령	기간	불이행
1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6월 (2개월 단위로 연장 /총 2년 초과 x)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2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호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 임시보호명령 가능 :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 이행실태조사

피해자보호명령의 문제점

임시/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

- 조사관, 법원사무관등,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 결정서 등본을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집행지휘

이행실태조사의 어려움

- 가정보호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이행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이행실태의 조사명령을 받은 조사관 등은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가정보호심판규칙)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 불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접근금지 보호처분의 경우와 동일한 집행의 문제.

- 오로지 퇴거, 접근금지 등 소극적 처분에 한정되어 있음.
 - 경제적 폭력 등의 경우 대처 불가능

VI. 배상명령

배상명령

배상신청(56조)

-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 계속된 1심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배상명령(57조)

-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금전,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된 금액 등지급 명

배상명령선고(58조)

- 보호처분 결정과 동시에

신청각하(59조)

- 배상신청이 부적법한 경우, 신청이 이유없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2015년 4건 접수

- 가정보호사건이 계속된 1심 법원에 부양료 및 치료비 지급 신청
- 보호처분 결정과 동시에 선고
- 경제적 폭력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여전히 부족
 - 지급하지 않더라도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 이외 아무런 제재 없음.



울컹하다 벌컹하는 부부에서

알콩달콩 사이좋은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 일 시 : 2017년 7월 22일 ~ 23일
- 장 소 : 양재동 더케이서울호텔
- 참석자 : 서울가정법원의 상담위탁자 부부 24쌍과
자녀 12명 포함 60명
- 강 사 : 이서원(한국분노관리연구소 소장,
부부갈등문제 진단 전문상담가)
이윤정 · 정지혜(미술심리치료전문가)
- 진 행 : 차연실 · 김진영 상담위원,
유혜경 선생님 외 자원봉사자 5명

자고 제안하였다.

(2) 부부행복증진학교

: 울컹벌컹에서 알콩달콩으로

1) 이견 당신이 짱

이서원 소장은 오답노트를 작성하려면 우선 내가 선택한 남편과 아내가 최고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두 쌍의 부부가 마주보고 각각 상대방의 장점을 서로 소개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했다.

이와 관련하여 본소 상담 프로그램 참석을 통해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있는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사례 1.

주말부부의 마음에서 흘러가는 시간

남편은 “아내가 나의 아내로 살아주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다. 내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모든 것을 고치는 것은 힘들고 가끔 싸울 때도 있지만 함께 있어서 행복하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아내를 기분 좋게 해주고 싶다. 예전에는 아내와 문제가 생기면 아내를 탓하고 꾸짖으려고 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상담을 받으면서 지금은 변화가 생겨

I. 프로그램

1. 첫째 날 저녁강의

(1) OPENING

차연실 상담위원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개 및 본소 부부캠프의 취지를 전달한 이후, 이서원 소장은 오답노트는 시험에서 몇 점을 맞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틀렸는지 정확하게 알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부부 관계에도 오답노트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첫째 날 저녁강의를 시작하였다. 울컹벌컹한 부부관계를 알콩달콩한 부부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함께 오답노트를 작성해보

아내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게 되어 주말에 집에 가면 집안일을 하는 아내를 돕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아내는 “상담을 받으면서 남편 성격이 부드러워졌고 집안일도 많이 도와준다. 남편이 변해서 잘해주니 나도 남편을 바라보는 마음이 예전과 달라졌다. 주말부부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간다고 생각했다. 같이 있지 않은 것이 편했다. 그러나 지금은 주말이 기다려진다. 예전에는 남편만 고치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변화된 남편으로 인해 나도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부부의 이야기를 경청한 이서원 소장은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오래 할 수 없지만 나를 위한 일은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다면서, 상대방에게 잘하면 이에 대한 수혜자는 내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나를 위해서 잘한 것이 되는 일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마음에 존재하는 시간은 좋아하는 것을 기다릴 때는 천천히, 좋아하는 것을 할 때는 빨리 간다고 하면서 이는 당연히 부부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2) 받고 싶다 그리고 줄 수 있다

이어서 이서원 소장은 부부 서로가 각자 원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을 기대하며 살고 있다면서, 내가 희생하는 것 없이 상대방에게 받기만 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였다.

부부가 서로 받고 싶은 것과 줄 수 있는 것을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사례 2.

- 받고 싶다 : 아내의 인정 vs 남편의 월급

- 줄 수 있다 : 아내에게 따뜻한 말 vs

남편과의 편안한 노후

남편은 “우리는 맞벌이를 하는데 아내보다 퇴근이 빠른 내가 간식이나 식사를 준비한다. 이에 대한 아내의 적절한 칭찬이나 반응이 필요하다. 무뚝뚝한 성격상 대화가 부족했는데 이제 고생한다, 사랑한다, 고맙다는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아내는 “남편이 대부분의 살림을 하고 있어서 본인의 월급으로 생활비를 쓰는데 이 월급을 나에게 공개하지 않아 알고 싶다. 남편은 음주와 장남 노릇을 위한 지출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나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줄인다면 행복한 노후를 준비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이서원 소장은 관점이 다른 것이 불신의 문제를 생기게 한 것이라며 부부가 서로 양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첫날 강의를 마쳤다.

2. 둘째 날 오전강의

(1) 부부행복증진학교

: 울컥벌컥에서 알콩달콩으로

이서원 소장은 샤를 드 푸코의 “나는 배웠다”라는 시를 소개하며 둘째 날 오전강의를 시작하였다. 위 시를 함께 읽고 시의 내용 중 인생을 살면서 내가 깨달은 것과 배우자가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각자 체크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부부끼리 모듈활동을 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사례 3.

남편의 거짓말과 아내의 잔소리

남편은 “나는 양보를 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러나 아

내는 하루 종일 잔소리를 한다. 조금 줄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아내는 “남편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먼지가 많은 직장에 다니는데 퇴근 후 씻지 않고 집안을 돌아다니는 것이 고쳐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로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는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이서원 소장은 거짓말을 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하였다. 허세에 대한 호응은 작게, 양심을 건드리게끔 속아주거나, 다독여주는 방법을 권했다. 또한 잔소리는 상대가 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만, 효과는 단지 25초뿐이고 상대방을 떠나게 할 뿐이라면 서 습관을 고치기 위한 방법은 고통이나 손해를 느끼는 것이라 말했다.

3. 마무리

마지막으로 이서원 소장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무조건 달라고 하는 것만큼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없다면서, 아무 상처 없이 호랑이를 잡을 수 없으므로 서로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내어주고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당부하였다.

부부관계에서 틀릴 때에는 캠프에서 작성한 오답노트를 보고 올바른 방향을 찾자고 하면서 프로그램을 마무리하였다.

4. 자녀 미술치료 프로그램

- 「그림을 통해 나를 찾는 여행」

이번 부부캠프에서도 자녀들을 대상으로 “그림을 통해 나를 찾는 여행”이라는 주제 하에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간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1) 영·유아 프로그램

▶ 강사 : 정지혜(미술심리치료전문가)

정지혜 미술심리치료전문가는 보육과 안전이 우선시되



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첫째 날에는 ‘안녕! 반가워’ 활동을 통해 자기를 소개하고 친밀감을 형성하고 신체활동을 통해 이완한 후 ‘바람아 불어라’ 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자기표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도왔고, ‘알록달록 내 마음’ 활동을 통해 자기감정을 표현하며 성취감과 자율성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촉감놀이’ 활동을 통해 감각활동을 증대시키고 창의적 자기표현력을 촉진시켰으며, ‘세상에 하나뿐인 연필’ 활동을 통하여 자기감정을 표현하고 자율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리고 ‘I can do it!’ 활동을 통해 집단 응집력을 증진시키고 성취감을 통한 긍정적 자기인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참석한 영·유아들 모두 안전한 환경에서 미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자유롭게 표현하였고, 미술작업과 신체놀이의 요소가 함께 구성되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2) 아동 및 청소년 프로그램

▶ 강사 : 이윤정(미술심리치료전문가)

이윤정 미술심리치료전문가는 창의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기 내면의 다양한 정서를 표현할 수 있도록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첫째 날에는 ‘나를 소개 합니다’ 활동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고 집단을 구조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글동글 내 마음’ 활동에서는 감정 및 욕구를 탐색하여 긍정적인 상호



작용을 할 수 있었고, '마음공간'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왔다.

둘째 날에는 '아바타 꾸미기' 활동을 통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줄 수 있는 아바타 인형을 만들어보았고, '나를, 너를 사랑하기' 활동을 통해 서로를 칭찬하면서 지적 상호작용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아이들 스스로 적절한 이완과 해소를 경험하였고 자기

작업에 몰두할 뿐만 아니라 신체 에너지를 충분히 발산함으로써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II. 정리

이번 캠프에서는 부부가 평소 쉽게 말하지 못했던 서로의 장점, 내가 배우자에게 원하는 것, 내가 진심으로 배우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것 등을 글로 적어보고 다른 부부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 또한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틀렸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틀렸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이번 캠프를 통하여 참석한 부부들이 서로를 더 이해하며 가까운 관계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차연실 상담위원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이야기 -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힐링하기 위한 방법을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알아보는
무료 공개강좌



- ▶ 일시
2017년 2월 ~ 12월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 ~ 5시 (1월, 8월은 휴강)
- ▶ 대상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수시접수 가능)
- ▶ 강사
김병후 원장(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원장)

교육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나들이

세심한 배려 속에 보낸 비혼모 가족들의 행복하고 알찬 시간

- 일 시 : 2017년 7월 22일(토) 오전 9시 ~
7월 24일(월) 오후 1시
- 장 소 : 한국여성수련원(강원도 옥계)
- 참가자 : 비혼모 44명, 자녀 44명,
애란네트워크 직원 등 13명
상담소 직원 2명,
상담소 실습생 및 자원봉사자,
탁아지원자 등 12명
총 115명
- 후 원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활동을 위해 간식꾸러미와 커피티, 튜브, 입욕제, 비치백 등을 지원하였다.



프로그램 개관

1일차 7월 22일 (토)

「오리엔테이션 및 해변 물놀이」

서울에서 버스로 4시간 정도 걸려 강원도 옥계 한국여성수련원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캠프일정 등의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숙소배정 뒤 점심식사를 한 후 해변에서의 자유시간을 가졌다.

상담소에서는 캠프기간동안 아기와 엄마의 즐거운 캠프

「온 가족이 함께 하는 레크리에이션」

▷강사 : 노재광 웃음치료전문가 (아하교육컨설팅 대표)

저녁식사 후,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5팀으로 나뉘어 초성퀴즈, 인터뷰게임, 순발력게임, 연상게임 등을 하며 참가자들 사이에 어색함과 긴장을 풀고 서로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인터뷰게임을 통해 조별구성원끼리 질문을 주고받으며 참가자들 사이에 어색함을 풀고 자연스럽게 엄마와 아이, 이웃 가족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2일차 7월 23일 (일)

「가족소통 체험활동 - 경포 아쿠아리움」

경포 아쿠아리움은 근처 경포호 및 경포 앞바다에 서식하는 바다고기와 담수고기, 기타 생물, 천연기념물인 무태장어 및 한국의 수달, 물범 등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있는 종 뿐 아니라 지금 자연에서 만나기 힘든 산천어와 철갑상어, 아마존, 아프리카, 동아시아 등에 서식하는 세계의 바다어류, 담수어류, 펭귄 등이 전시되어 있는 곳이다.

참가자들은 아름답고 신기한 여러 생물들을 아쿠아리스트의 설명을 들으며 관람하였고 마침 수달과 펭귄들의 식사시간이라 그 모습을 보며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추억을 남겼다.

특히 엄마들은 자녀의 방학 과제 중 그동안 힘들었던 체험학습일기를 제출 할 수 있겠다며 흐뭇해하였다.



「해양레포츠 체험 및 해변 물놀이」

해변물놀이 시간, 참가자들 중 바나나보트 탑승을 원하는 사람들은 바나나보트 탑승체험을 하였다. 시원한 바닷바람과 바닷물을 맞으며 바다 위를 나는 듯 가는 바나나보트를 타며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과 스트레스를 바다에 날려 보내고 환호하였다. 해변에서는 자녀들과 모래놀이, 해수욕, 유아들을 위한 유아풀장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준비된 그늘 막 아래서 수박과 간식도 먹으며 여유롭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사 : 조은경 상담위원 (본소)

해변 물놀이와 함께 진행 된 법 교육에서는 자녀들의 연령별로 참가자들을 나누어 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의와 개별 면접상담을 진행하였다.



강의에서는 주로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청구 등 비혼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을 다루었다. 이밖에도 비혼모들 중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카드빚, 은행대출, 휴대폰요금 연체 등의 생활고로 인한 채무관련 상담 시간이 있었고 파산·면책에 대한 강의도 함께 진행되었다.

「엄마를 위한 댄스테라피」

▷강사 : 최정아 소장 (트리인마인드 연구소)



저녁식사 후, 엄마들은 ‘댄스테라피’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엄마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자녀들은 같은 시간 놀이, 무용동작, 공작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여 참가자 전원이 큰 원을 그리면서 가벼운 댄스를 추고, 작은 원을 울리며 긴장을 풀고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두 사람이 짝을 지어 균형 맞추기, 안마를 통한 가벼운 터치와 허그를 통해 마음을 열어 스스로와 서로를 따뜻하게 격려하고 보듬어주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에는 경쾌한 음악에 맞추어 짝을 바꾸면서 춤을 추고 아이들처럼 큰 소리로 웃고 즐기며 잠시나마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활기찬 에너지를 충전하였다.

참가자들은 아이들과 떨어져 엄마들만의 시간을 가지며 책임감과 긴장감을 털고 마음의 위안을 얻는 시간이었다며 만족해하였다.

「자녀를 위한 활동시간」

엄마들이 댄스테라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자녀들은 연령별로 3개 반으로 나뉘어 전문 강사와 자원봉사자들의 지도를 받으며 각각 활동시간을 가졌다.

「36개월 미만 아동을 위한 놀이활동」

▷강사 : 노재광 웃음치료전문가 (아하교육컨설팅 대표)

엄마와 떨어지기 싫어하는 아이들의 관심을 사로잡는 비누방울 놀이로 시작한 놀이치료 교실은 레고공작 놀이, 공놀이, 술래잡기 놀이, 풍선놀이 등을 통해 흥미와 재미를 유발하여 아이들의 집중력과 또래와의 교류를 통해 배려와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



「4세 이상 6세 이하 아동을 위한 무용동작활동」

▷강사 : 김미지 소장 (트리인마인드 연구소)



노래로 자기소개 및 인사, 내 자리 찾기, 오뎅이 율동, 덩동덩동 움직임, 다함께 패러슈트 흔들기, 힘을 합쳐 그룹원 한명씩 높이 올려주기를 통하여 협력하기와 지지하기를 배우며 집중력과 그룹 내 다른 아동을 서로 배려하는 연습을 하였다.

아동들은 이러한 간접적 사회 경험을 통해 사회성 및 자발성을 배울 수 있고 양보와 배려를 통해 상호작용하는 법을 배우는 등 새로운 경험의 기회가 되었다.

「7세 이상 초등학생 아동을 위한 공작활동」

▷강사 : 이영옥 소장 (트리인마인드 연구소)

각기 다른 모양의 도화지에 파스텔로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그리게 한 뒤 아이들의 작품들을 모두 모아 하나의 열기구로 완성하고, 또 작은 종이에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꾸민 뒤, 앞뒤로 플라스틱 투명 반구를 붙여 작은 우주선을 완성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신을 마음껏 표현하며 자신감을 키우고, 작은 작품들이 모여 완성이 되었을 때 성취감을 맛보며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되는 시간을 가졌다.



3일차 7월 24일 (월)

「행복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강의」

▷강사 : 박연재 주임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강릉권주거복지센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비혼모 가정이 임대주택, 주거급여, 주택대출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다 자세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안내를 하였다.

특히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강의로 참가자들의 집중을 높였으며 주거관련 정보를 알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강의 이후에는 장기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자격 및 임대주택 관련하여 개별상담을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의 소감

- 저 혼자 힘으로는 아이와 장거리 여행은 생각하기 어려운데 2박3일 동안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았습니다.
- 바다가 내다보이는 욕조에서 여유롭게 거품목욕 한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이도 너무 좋아해 기뻐했습니다. 입욕제까지 준비해준 세심한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 아이가 평소 가고 싶어 했던 아쿠아리움에 가서 좋았습니다.
- 낯선 룸메이트 가족과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서로 알아가며 공감하고 위로 받는 시간을 가져서 좋았습니다.
- 여행하면서 겨우 옷만 준비해왔는데 푸짐한 간식·야식·사랑을 챙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박3일이 짧게 느껴질 만큼 너무 행복했습니다.
- 깨끗한 숙소에서 에어컨을 마음껏 틀어놓고 시원하게 지낼 수 있어 좋았습니다.
- 아이에게 해주지 못했던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어 좋았습니다.
- 단독숙소에서 아이와 충분한 쉼을 누릴 수 있어 좋았습니다.
- 곳곳에서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 버스에서 만화영화를 틀어주고, 간식도 미리 준비해 주셔서 아이와 장거리 이동을 무사히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모두 좋았지만 특히 교육프로그램이 좋았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정말 유익한 시간 이었고 자존감도 높아졌습니다.
- (장애아동 동반 가정) 장애인 시설이 갖춰진 숙소를 배정해 주셔서 정말 잘 쉬었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가정법률 강의시간 좋았습니다. 지루하고 어렵지 않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가정법률에 관한 상담을 하면서 진심을 담아 조언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힘들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곁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라는 말이 너무 든든합니다.
- 아이가 학령기 반이라 해변활동, 아쿠아리움 견학, 미술치료 등 좋은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리다 갈 수 있어 좋았습니다.
-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며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자신이 없었는데 위로받는 시간이었습니다.

- 깨끗한 숙소, 푸짐한 식사, 아이와 놀기 좋은 해변, 처음 타본 바나나보트 모두 좋았습니다.

참가자들이 필요한 지원 및 바라는 점

- 직장에 나갈 때 자녀를 맡길 곳이 없는 것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 양육비 청구와 강제로 이행시키는 법을 강화 했으면 합니다.
-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빚, 채무 문제로 시달리면 의지할 곳이 간절합니다.
- 주거가 안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

마지막 날 모든 프로그램이 끝난 후 진행되었던 설문조사 결과 비혼모 가정이 겪고 있는 법적·경제적·제도적·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비혼모 가정을 위한 교육 및 지원프로그램 외에도 비혼모와 비혼모 가정의 자녀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아직도 많은 제도적 개선과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앞으로 상담소가 이들을 어떻게 더 도울 것인가에 관해 그 방법과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다.

조은경 상담위원

옥제, 여름 엄마랑 아기랑 행복캠프 소감문



- 임**

휴가철인데 힘든 경제적 여건으로 서*이와의 여행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이번 여름캠프는 서*이도 마음껏 뛰어놀고 저도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숙소도 너무 좋았고, 아침에 일어나 확 트인 바닷가를 보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늘 아이와 함께 해야 해서 아이 위주의 놀이시설만 이용했는데, 모든 프로그램들이 신나고 재밌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참가자들을 힐링 시켜 주고 용기를 주시려는 열정과 그 속에서 열심히 참여하는 다른 엄마들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며 희망을 잃지 않고 서*이와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추억을 만들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 김**

이번 여름, 깨끗한 옥제해변에서 다른 비혼 엄마들과 아이와 함께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캠프 동안 어려울 때, 고민이 있을 때, 힘이 들 때, 항상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잊지 말라는 말씀 감사하고 마음

속에 담고 가겠습니다. 든든한 버팀목이 생긴 것 같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생활하면서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옛날보다 즐겁고 힘이 됩니다.

참! 이번에 다녀온 경포 아쿠아리움에서 아이는 너무 즐거웠으며 또 다녀오자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추억 남기게 해주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감사합니다.

- 현**

살면서 바다와 아쿠아리움을 가보지 못해 우리 아들 유*이에게는 누구보다 빨리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아이를 데리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학원에 다녀 몸과 마음이 지쳐서 놀아줄 기회가 없었는데, 아쿠아리움에서 유*이가 상어와 펭귄을 보며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엄마가 몸이 힘들어도 잘 왔다는 생각이 들고 덩달아 저도 뿌듯하고 즐거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곳에 취직하고, 돈도 많이 모아서 아이에게 좋은 것들 많이 보여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좋은 곳에 놀러가서 우리 아들 기억 속에 좋은 추억들 많이 남겨주고 사진도 많이 찍어줄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이런 좋은 기회 만들어 주신 가정법률상담소, 감사합니다.

- 김**

이번 캠프를 바다로 간다는 생각에 기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재미있는 일정들이 많아서 2박3일 동안 즐거운 캠프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일정 동안 날씨도 걱정했던 것보다는 좋았고 해변 주변도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아쿠아리움은 처음 가 보았는데 신기한 물고기들도 많고 그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댄스테라피를 하면서 다른 엄마들과 서로 안마도 해주고 눈을 마주치며 춤을 출 때 힐링이 되고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캠프에 와서 다른 싱글맘들과 친해지고 인연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즐거운 추억 남긴 것 같아서 행복했습니다.

- 정**

여행 이틀 전부터 태*이가 아파 여행을 고민했지만 막상 오니 컨디션 최상으로 잘 먹고 잘 노는 태*이를 보며 안 왔으면 어쩔 뻔했나 싶었어요. 태*이와 바다로 놀러온 것은 처음이라 더욱 신났었어요. 다양한 프로그램과 아쿠아리움 방문, 가정법률 상담, 댄스테라피까지 어느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없이 알찬 2박 3일을 보내다 가는 것 같아 기분이 좋기도 하면서 아쉽기도 했어요. 2박3일 동안 많이 웃고 잘 노는 태*이를 보면서 뿌듯하기도 했구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은 남이 해주는 밥인데 이곳에서 삼시세끼 맛있는 밥도 먹고 몸은 피곤하지만 엄마도 아기도 정말 즐거웠던 옥계 여름 캠프였어요. 이렇게 좋은 추억 쌓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2박3일 동안 고생하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해요. 다음 캠프 때도 꼭 참여하고 싶어요. 참 즐겁고 신났던 태*이와의 첫 옥계캠프였어요.



인터넷상담



어머니는 30년 전 아버지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를 낳았고, 어머니가 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여 현재 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아버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현재까지 아버지, 할아버지 등 친가 친척들과 계속 연락을 하며 지냈고, 할아버지도 저를 손자로 여기며 예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4년 전 돌아가셨는데, 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와 아버지 간의 부자관계를 법률적으로 확실히 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할아버지는 유전자검사를 통해 동일부계라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원고가 되고 제가 피고가 되어 저와 아버지 간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여 저와 아버지 간의 부자관계를 밝힐 수 있을까요?

A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부자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므로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생모가 혼인 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 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대법원 1997. 2. 14. 96므738 판결).

따라서 이미 아버지가 사망한지 1년이 지났다면, 더 이상은 아버지와 귀하 사이의 부자관계를 밝힐 수 있는 법률적 방법은 없으며, 어머니가 귀하를 상대로 귀하와 아버지 간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부적법 각하될 것입니다.

김민선 변호사



펫로스 반려동물의 죽음 미안해 사랑해 그마워



리타 레이놀즈 지음,
조은경 옮김,
책공장더불어 2012

즐거찾기 해 놓은 반려동물 관련 사이트에서 부모님을 일찍 잃고 몇 년째 고양이와 둘이 살아온 이가 현관에서 배웅해주던 고양이가 퇴근 후에 보니 죽어 있어서 며칠째 망연자실하고 있으며, 자신의 이러한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더욱 힘들다는 하소연을 보았다.

이같이 가족처럼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반려동물을 키우던 사람이 슬픔이나 정신적 장애를 겪는 현상을 '펫로스 pet loss'라고 한다.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반려동물을 '또 하나의 가족'으로 여기는 '펫팸족'이 대거 등장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며, 반려동물 산업이 단기간에 급성장하면서 시장 규모는 커졌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정신적인 감수성이 성장할 기회가 별로 없어 이 같은 증후군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는 견해가 있다고 한다. 『인간과 개, 고양이의 관계 심리학』의 저자 세르주 치코티·니콜라 게갱은 "반려동물의 죽음에 남자들은 가까운 친구를 잃었을 때, 여자들은 자녀를 잃었을 때와 같은 고통을 느낀다."고 했다. 그만큼 반려동물의 죽음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불러온다는 것이다.

2001년 아마존닷컴에서 선정한 '올해의 책', 『펫로스: 반려동물의 죽음』이다. 이 책에서는 반려동물의 죽음, 그리고 무지개다리 너머 - 반려동물과 사는 사람들의 반려동물의 죽음에 대한 표현 - 에 대해 그리고 동물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즉 반려동

물은 평화롭게 무지개다리를 건너고, 반려인은 동물친구를 아픔 없이 보내는 방법에 관한 책이다.

책의 저자 리타 레이놀즈는 남편, 두 아들과 함께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아프고 나이 든 동물들을 위한 보호소 'The Garden of the Animals(전 Howling Success)'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많은 동물가족을 떠나보낸 과정과 경험에서 배운 바를 이 책에 썼다. 저자는 반려동물의 죽음을 통해 나와 다른 세상의 모든 존재에 대한 배려를 배울 수 있다고 한다.

고양이 세 마리와 살면서 문득 내 고양이들도 늙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 책을 샀는데, 사실 사 두기만 하고 읽지는 않았다. 그런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하고 싶지 않았다고나 할까, 고양이 첫째를 보내고 두 번째 해에 이르러서야 겨우 이 책을 읽었다. 고양이 첫째를 보내고 가장 위로가 되었던 것은 고양이 여러 마리를 키우는 누군가의 블로그에서 본 것으로 여러 마리를 키우고 여러 마리를 보내본 그는 괴롭고 힘들었던 순간을 기억하지 말고, 그 아이로 인해 기쁘고 행복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조언했는데, 그것이 참 힘이 되었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우리 가족끼리는 온전하게 우리 고양이 첫째를 특별하게 기억할 수 있는 것도 다행스럽다.

이숙현 편집부장

결혼과 인생(174)



크리피 : 일가족 연쇄 실종 사건

감독 구로사와 기요시

출연 니시지마 히데토시, 다케우치 유코,

카가와 테루유키, 후지노 료코



전직 형사이자 현재는 범죄심리학 교수로 전직한 다카쿠라(니시지마 히데토시)는 아내 야스코(다케우치 유코)와 함께 한적한 동네로 이사 온다. 아무런 연고가 없는 동네에서 새로 뿌리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야스코는 가까운 이웃집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인사를 나누지만, 그녀의 성의를 반갑게 맞아준 건 중년 남자 니시노(카가와 테루유키) 뿐이다. 그는 아내가 병석에 오래 누워있다고 설명했지만, 근방에서 니시노의 아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한편 후배 형사 노가미의 부탁으로 6년 전의 '히노 시 일

가족 실종 사건'을 추적하던 다카쿠라에게, 니시노의 중학생 딸 미오(후지노 료코)는 충격적인 고백을 한다. “그 남자 우리 아빠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구로사와 기요시는 마에카와 유타카의 동명 소설을 스크린으로 옮기면서, 소설에 더덕더덕 붙어있는 군살들을 죄다 걷어냈다. 그리고 자신의 대표작 중 하나인 1997년 작 〈큐어〉와 〈크리피〉를 겹쳐놓았다.

〈큐어〉에서 최면으로 상대방을 지배하며 살인을 교사하는 사악한 존재 쿠니오, 그의 최면 앞에 무력하게 무너져 내리며 자신의 내면에 그런 게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무시무시한 폭력성을 끄집어내던 희생자들의 관계는, 〈크리피〉에서 순하고 좀처럼 타인을 의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약점을 순식간에 파고들며 악물과 카리스마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살인마 니시노, 그에게 지배당하는 희생자들의 관계와 대단히 유사하다.

〈큐어〉에서 쿠니오의 악마성을 유일하게 알아보는 형사 다카베와, 〈크리피〉에서 니시노를 가장 먼저 의심하기 시작하는 다카쿠라는 비슷한 착각에 빠진다. 그러나 악과 대결하여 그 정체를 꿰뚫어보고 파악할 수 있다는 오만함은 예정된 실패 앞에 당황한다. 두 사람 모두, 무지에 대한 죄값을 치른다.

좀 더 자세히 부연하자면, <크리피>의 다카쿠라는 자신이 완벽하게 취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살인마에게 찢려 중상을 입었다. 이제 경찰직을 그만두었지만, 마음속에는 언제나 당시의 실패를 만회하고 싶고 범죄에 대한 자신의 통찰력이 틀리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싶은 열망이 있다. 정작 남편의 새 직장 때문에 낯선 곳으로 갑자기 이사 와야 했던 아내 야스코의 외로움과 불안을 눈치 채지 못했고, 히노 시 일가족 실종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 소녀 사키를 취조할 때에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무심정한 야망과 폭력적인 다그침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니시노를 자신의 시선 앞에 포박시켰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아내 야스코가 니시노의 지배에 굴복했음을 알지 못했다.

이웃과 가능한 한 사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고(단체 이웃집 사람이 어떤 사람일 줄 알고?), 타인이 쉽게 끼어들지 못할 자신만의 공간(나의 집, 나의 가족)에서 안온하게 살고 싶은 욕망은 이제 꽤나 보편적이다. 도시의 익명성을 더욱 편하게 느끼는 이들, 익명의 가면은 이 시대의 미덕이자 예의일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삶 표면에 살짝 생겨난 균열을 놓치지 않고, 익명의 가면을 벗지 않은 채 그 틈새를 파고들어 순식간에 본체를 사로잡아버리는 악을 상상

한다면 어떨까. 여기서의 익명은 온라인 등의 '비대면' 사회 네트워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크리피>의 니시노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중년 남성이지만, 상대방이 될 두렵워하는지 순식간에 파악한 다음 바로 그 두려움의 대상으로 변신할 줄 아는 능력을 갖고 있다. 혹은 거리에서 마주치더라도 저 사람이 내가 아는 그 사람이던가 가웃거릴 정도로 표정과 태도를 순식간에 바꿔버릴 수 있는, 자기 자신의 특징을 최대한 지워버릴 줄 아는 능력을 갖고 있다. 무수한 '나'를,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장악하고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니시노다. 그는 단지 '두 얼굴의 사이코패스'라고 간단하게 설명될 수 없는 존재다. 그렇게 타인의 물리적/정신적 '침입'은 우리 시대의 가장 끔찍하고 두려운 악이 된다. 이십 년 전 <큐어>에서 그랬듯, 구로사와 기요시는 <크리피>를 통해 그런 악과 마주쳐야 했던 이들의 삶이 얼마나 황폐해질 것인지 무시무시하게 예언한다.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 누가 새로 이사 왔는지 애써 모르는 척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묵시록이다.

김용언 영화 칼럼니스트



법률구조체험교육 후기 - 가재울중학교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고

상담소는 법교육의 일환으로 초중고 학생들에게 체험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7월 13일 본소에서 이루어진 가재울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법률구조체험교육 후기를 발췌, 요약하여 실는다.

이 다 빈

우리 학교 학생들이 참여한 모의법정에서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어 좋았고, 특히 폭력을 가하면 무조건 법정에서 죄로 인정되어 심판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학교 학생들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 또 가정법률에 관한 작은 책자를 나누어 주셨는데 그 책자에 있던 내용을 잘 읽어보면 가정폭력 등 많은 정보를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좋았다.

판을 통해서 검사, 변호사, 판사 등이 하는 역할과 실제 법정에서 일어나는 재판 과정과 하는 일도 알 수 있었다. 평소에는 법에 별로 관심이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다녀오게 되면서 법률구조기관, 검사를 비롯한 법률가들이 하는 일을 알게 되어 좋았다. 또 법을 알면 알수록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점도 알게 되었고 모의재판에 직접 참여하면서 진짜 법조인이 되어 실제 재판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 한 빈

원 혜 민

맨 처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대한 기관설명, 유래를 비롯해 우리나라에 기여한 바와 역할을 동영상 교육을 통해 알 수 있었고, 재판과정, 법률용어, 법과 관련된 여러 직업, 기관들의 역할, 업무에 대해 배웠다. 특히 형사모의재

뉴스에서 보고 듣던 형사재판의 절차나 용어들을 알게 되어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특히 친구들이 모의재판을 하는걸 보면서 실제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어 좋았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체험을 통해 법을 통해 좋은 일을 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조 휘 정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돕는 곳인지(원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다 사회적 약자로 폭이 넓어짐) 알 수 있었고, 형사재판의 진행과정과 법률 용어와 여러 상식들을 배울 수 있어 좋았다. 법에 관련하여 사회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기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중에 곤란한 일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면 상담소를 통해 도와줄 수 있고 직접 돕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박 주 영

이곳이 무료로 법률상담도 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형사재판을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되었다. 특히 학교 친구들이 직접 나와서 하는 것을 보니 재미있었고 형사소송에 대해 어렵지 않고 쉽게 이해 할 수 있었다.

상담은 이렇게 ...

전화, 인터넷, 서신 상담 등 다양한 상담창구가 열려 있으나, 문제의 특성상 되도록이면 상담자와 직접 면접상담을 하도록 권하고 있다.



면접상담

- 평일 : 오전 10시 ~ 오후 5시(접수 오후 4시까지)
- 야간상담 : 매주 월요일 오후 6시~9시(접수 오후 7시까지)

다문화 가정을 위한 영어상담

- 매주 월요일 오후 6시~9시(접수 오후 7시까지)
- 매주 금요일 오후 3시~5시
- * 사전 예약 필수

인터넷상담

- <http://www.lawhome.or.kr>
- <http://www.miznet.daum.net>(가정법률)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 출장상담

- 평일 : 오전 9시~오후 5시

상·담·소·소·식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법률구조체험교육 - 가재울중학교

본소에서는 지난 7월 13일 가재울중학교 3학년 학생들과 교사들(120명)을 대상으로 『법률구조체험교육』을 실시하였다. ‘한국의 법률구조제도와 가족법개정운동사에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주도적인 역할과 그 의미’에 대한 영상 시청과 중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교육으로 ‘범죄의 시작부터 끝까지-형사소송절차’에 대해 강의가 있었다.

강의 후 학교폭력을 주제로 가재울중학교 학생들이 직접 판사, 검사, 변호사, 피고인, 증인역할을 맡아 형사모의재판을 시연하는 시간도 가졌다.



학교폭력관련 강의와 친구들이 직접 연기하는 형사재판을 관람하면서 어려운 법률용어와 형사재판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법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유익했다는 교육 후기가 있었다. (28~29면 참고)

서울대 및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연세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생 임상실습 하계 방학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2기도

2017년 7월 3일부터 7월 26일까지 4주간 서울대학교와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부생 및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생의 실습이 본소에서 진행되었다. 본소의 사회복지 임상실습은 법학과 사회복지학의 접목을 통하여 가정문제에 대한 법률적 시각을 정립하고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복지 실천기술과의 접목을 목적으로 한다. 방법론으로는 개별상담 및 가정문제 예방 프로그램의 참관과 개입을 통하여 본소의 법률구조사업을 이해하고 임상사회사업가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된

다. 실습학생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고승환(3학년),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윤정(4학년),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김세연(2학기)이다.

지난 7월 12일에는 서정열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실습지도 교수, 7월 19일에는 김혜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실습지도 교수가 각 본소를 방문하여 관배희 소장과 본소 법률구조사업 취지,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의 진로 내지는 교육방향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고,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및 차연실 상담위원(본소 실습지도자)과 발전적인 실습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이 밖에 하계 방학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2기 과정이 7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되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오수정(2학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위평복(1학년)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장하얀, 최진홍(2학년) 등이 실습을 했다.

출장 법교육 및 본소 실습 활발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출장법교육

- 7.3. 폭력예방교육 - 신도초 교사 및 학부모 대상
가정폭력예방교육
- 조은경 상담위원
- 7.6. 폭력예방교육 - 당촌초
- 김민선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현장실습(7.3 ~ 8.31)

김지나, 김여운, 이유진, 성하운

●동국대학교 현장실습(7.3 ~ 8.25)

김혜정, 설나라, 이윤희, 김지희, 신주현, 정세욱, 정재원, 배준모, 이윤복, 김혜림, 전해슬, 강수지, 서정욱, 정창순, 조태현, 최민서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정연이, 박소연, 정다혜 상담위원
김민선, 황현정 변호사, 오동준, 장민수 법무관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7월 5일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주최하고 동 연구원, 과천시, 과천시여성비전센터가 공동주관한 「찾아가는 과천시 여성가족정책토론회」에서 「성평등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가족법의 현주소와 과제」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하였고, 25일에는 동 연구원의 「경기도 가정폭력가해자 개입모델 운영실태 및 발전방향 :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연구 중간보고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5일 오전과 26일에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조정을 하였다.

관배희 소장, 중앙일보와 인터뷰 등

본소 관배희 소장은 7월 4일 본소에서 임상 혹은 실무수습 중인 로스쿨, 사회복지학과 학생들과 면담을 갖고 격려하였다. 7일에는 서울가정법원의 성년후견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였고, 11일에는 군산지부 30주년과 관련하여 축하동영상을 촬영하였다. 12일에는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실습 관련 서정열 지도교수와 면담하였다. 14일에는 중앙일보에서 기획한 '헌법재판소 30주년 기념 주요한 30 판결'과 관련하여 '호주제 폐지 이후 사회변화'를 주제로 인터뷰 하였다.

● ● ● 고맙습니다

2017년 7월 자원봉사자

• 전화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박선화 님

• 주간상담을 해 주신

한수자 선생님, 강종협, 김민아, 김영주, 김지후,
김태주, 김형석, 박수열, 박은정, 박효선, 송명호,
오윤정, 유정아, 윤원섭, 이해민, 진승기,
홍수아 변호사

• 야간상담을 해 주신

김소이, 김진아, 이승주, 장철진, 전성배,
천정환 변호사 님, 이진철 재판연구관 님

•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상담을 해 주신

사대진, 임채룡 변호사 님

• 학생 자원봉사

박주연, 윤세혁, 이민주, 이현지, 정재희, 서인우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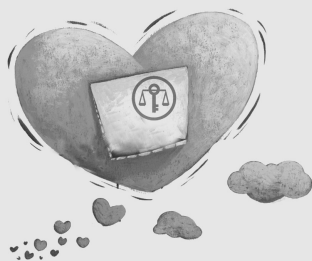
후 원

• 일반회원이 되신 분

남건우 님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현, 천정환, 김명희 님



회원이 되시려면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농 협 317-0003-1418-11 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780-5688 총무부

지·부·소·식

강릉지부

7월 10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협의이혼부모대상 자
녀양육안내를 실시하였다. 25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가
사조정을 실시하였다. 관내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4회(310
명) 실시하였다.

구리지부

의정부지방법원 가사조정 및 형사조정을 7회 실시하였
다. 7월 28일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좋은
부모교실’을 실시하였다. 이경숙, 김효경, 정이수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군산지부

7월 19일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및 이사장 이·취임식을
실시하였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가사조정을 2회, 자녀
양육안내 부모교육을 1회 실시하였다.

대구지부

대구가정법원에서 이혼관련 출장상담과 조정을 실시하
였다.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 및 가정폭력피
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7월 8일, 22일
대구가정법원 협의이혼의무상담제 주말프로그램 ‘협력하
는 부모’ 교육을 실시하였다. 장준범, 곽경화, 류경재, 구은
미, 신성욱, 김재철, 김중기, 박기대, 서수연, 윤용원, 박태
영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성남지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협력사업으로 이혼부부의 미성
년자녀양육안내를 성남지원 8회, 광주지법원 4회 실시하

였다. 성남지원 협의이혼의무상담을 4회 실시하였다. 7월 15일 건강한 가정만들기 프로그램으로 '가족캠프'를 실시하였다. 김승구, 이수연 변호사가 소송구조봉사를 한승일, 손수정, 송지민, 이경숙, 이수연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수원지부

수원지방법원 협의이혼부부의 미성년자녀 양육에 관한 의무면담을 9회 실시하였다. 부설 보라상담원에서 경찰동행 가정폭력피해자 가정방문상담을 실시하였다. 7월 6일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김정혜, 강은혜, 공영서, 김진영, 김현명, 박지현, 박지훈(성남), 박지훈(수원), 서정식, 임용호, 전태우, 한두환, 한승일, 홍성민, 황미옥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순천지부

매주 화요일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에서 부모교육을 4회 실시하였다.

울산지부

7월 12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전주지부

전주지방법원 가사조정을 3회, 협의이혼상담을 1회 실시하였다. 7월 6일, 7일 전라북도와 전주시 양성평등주간 기념 행사장 앞에서 가정폭력예방 캠페인 및 무료 법률구조 홍보를 실시하였다. 21일 이사회 및 법률자문위원 위촉식을 실시하였다. 정아람, 진희원, 서보람, 이연주, 박병건, 박정교, 박형운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중구지부

서울가정법원위탁 가정폭력행위자 15명을 대상으로 집단상담을 실시하였다. 이재경, 김창건, 박진석, 정수경, 임유정, 박은정, 정형준, 홍지혜, 황은하, 박수열, 고승현, 이동건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진주지부

7월 7일 진주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서 가정폭력예방 캠페인 및 무료 법률구조 홍보를 실시하였다. 21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양임석, 장진호, 류기정, 정동윤 변호사가 소송구조 및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창원·마산지부

창원지방법원 가사조정을 1회, 창원지방법검찰청 형사조정을 2회 실시하였다. 19일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4회 실시하였다. 남상업, 오유경, 강재현, 고정향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청주지부

6월 27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가정폭력행위자 집단상담을 실시하였다(22명).

춘천지부

춘천시 지원사업으로 효나눔복지센터, 시니어클럽, 남부 노인복지회관에 폭력예방 및 생활법률강좌를 실시하였다(300명). 춘천교차로, 춘천버룩시장, 강원GBN방송에 홍보를 실시하였다. 임미선, 허남정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2017년 6월 전국 상담통계

상담소 본부 및 전국 지부에서 2017년 6월 한 달 간 접수·처리한 총 상담건수는 13,319건으로 본부가 7,404건, 지부가 5,915건이었다.

본부는 6,823건의 법률상담 외에 화해조정 411건·소장 등 서류작성 126건·소송구조 44건을 처리하였으며, 지부는 법률상담 4,666건·화해조정 1,170건·소장 등 서류작성 23건·소송구조 56건을 처리하였다.

본부의 법률상담 6,823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17년 5월에 비해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남녀관계(0.9%→1.0%), 부부갈등(2.8%→3.0%), 이혼(23.7%→24.3%), 사실혼 해소(0.9%→1.3%), 위자료·재산분할(10.6%→10.7%), 양육비(7.7%→7.9%), 면접교섭권(2.4%→2.7%), 파양(0.1%→0.2%), 미성년후견(0.1%→0.4%), 성년후견(1.0%→1.2%)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한편,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민사기타(0.9%→1.0%),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절차(0.6%→0.8%)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본부의 법률상담 6,823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1,124건(16.5%), 전화상담 5,463건(80.1%), 통신 및 인터넷상담 235건(3.4%), 지상상담 1건(0.0%)이었다.

2017년 7월 본부 상담 통계

총상담 7,791			
법률상담 (7,280)			
면접	전화	통신	지상
1,051	6,074	154	1
화해조정	소장 등서류작성	소송구조	
319	151	41	

* 2017/7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제공(본부) 68,081건

지 부	총상담	법률상담					합계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면접	전화	통신	서신	기타				
서울본부	7,404	1,124	5,463	235		지상 1	6,823	411	126	44
강릉 (033) 652-9555	78	56	18				74		2	2
구리·남양주 (031) 551-9976	262	73	90				163	96	1	2
군산 (063) 442-1560	120	35	26				61	59		
대구 (053) 745-4501	783	101	5	2		출장 195	303	473	1	6
대전 (042) 520-5258	240	50	187				237		3	
동해 (033) 535-0188	94	53	41				94			
목포 (061) 273-2514	191		189	2			191			
부천 (032) 667-2314	330	48	184	1			233	97		
성남 (031) 707-6661	378	230	71	2		출장 26	329	44	2	3
수원 (031) 243-4600	445	138	162	3		출장 60	363	80		2
순천 (061) 753-9910	216	57	147				204	10		2
중구 (02)2238-6554	372	268	102				370			2
안동 (054) 856-4200	90	11	39				50	38		2
울산 (052) 246-9568	132	22	105				127		4	1
익산 (063) 851-5113	238	46	186			출장 3	235		2	1
인천 (032) 865-1120	366	173	171				344	7	1	14
전주 (063) 244-2930	160	118	30	7	1		156			4
정읍 (063) 535-3705	115	55	50				105	10		
진주 (055) 746-7975	149	31	74				105	37		7
정원·마산 (055) 261-0280	308	178	62	2			242	61		5
청주 (043) 257-0088	305	61	92	6			159	141	5	
춘천 (033) 257-4688	167	51	11			출장 104	166	1		
태백 (033) 554-4004	86	39	26			출장 21	86			
평택·안성 (031) 611-4251	120	56	46				102	16	2	
제천 (043) 644-5690	97	33	61				94			3
포항 (054) 283-7555	73	20	53				73			
지부총상담	5,915	2,003	2,228	25	1	출장 409	4,666	1,170	23	56
총 상담	13,319	3,127	7,691	260	1	출장 409 지상 1	11,489	1,581	149	100

**2017/6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제공(본부) 43,477건

백인변호사단

소 · 송 · 구 · 조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외국에서 사업을 핑계로 아내에게
대출을 받게 하고 잠적한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16-402

담당 : 고은희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및 재산분할

내용 : 원고(여, 43세)와 피고(남, 43세)는 1997년 3월경 혼인하고 슬하에 한명의 성인 자녀(여, 20세)와 사건본인(남, 9세)을 둔 법률혼 부부이다. 피고는 신혼 때부터 외도를 하며 가출을 일삼았다. 또, 피고는 사업을 핑계로 원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빚을 지기도 하였다. 원고는 아들이 생기면 피고의 방황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여, 사건본인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피고는 다시 사업을 시작한다는 명분으로 2011년에 중국으로 첫째 자녀를 데리고 떠났다. 중국에서 피고는 첫째 자녀의 학비를 빌미로 또다시 원고에게 대출을 받아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원고가 대출을 받아 보내준 학비는 피고의 사업자금으로 쓰였고, 첫째 자녀는 등록금이 없어 학교를 다니지 못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6년 동안 피고는 원고에게 제대로 연락조차 하지 않아, 원고는 피고의 경제적인 지원 없이 원고의 월급으로만 빚을 갚으며 힘들게 생활을 이어나갔다. 피고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으로 원고와 첫째 자녀는 우울증, 사건본인은 ADHD판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17. 4. 6.)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과 이에 대

하여 2017. 1. 21.부터 2017. 4.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7. 1. 2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500,000원씩을 지급하라.

6.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7.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업으로 과다한 빚을 지고,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40대 남성에게 면책 결정**

법률구조 2016-387

담당 : 강중협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41세)은 1999년 경 지인과 함께 호프집을 하기로 하고, 그동안 모아왔던 돈과 자신과 당시 예비신부의 이름으로 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동업자는 신청인이 투자한 운영자금을 전부 탕진하고 종적을 감추었다. 결국 호프집을 폐업하고, 이후 신청인은 호프집 운영자금 때문에 진 대출금을 갚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카드돌려막기를 하다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게다가 신청인은 배우자와 이혼까지 하게 되어, 자녀들의 양육비도 부담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신청인은 현재 호텔

에서 주차관리를 통한 월 평균 60만원의 소득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채무까지 변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로 하고 본소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 (서울회생법원 2017.6.1.)

채무자를 면책한다.

자녀 병원비와 사업운영비로 많은 빚을 진 50대 남성에게 면책 결정

법률구조 2016-428

담당 : 정민영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및면책

내용 : 신청인(남, 54세)은 소규모 식자재유통 사업을 운영하며 생활을 유지 하였는데, 자녀가 뇌성마비를 앓아 월 평균 250만원의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신청인은 자신의 소득보다 더 많은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신청인이 자녀의 치료에만 전념하다보니 사업은 점점 어려워져, 결국 2001년 경 폐업하게 되었다. 이후 경제적 갈등으로 이혼까지 한 신청인은 일용근로와 대리운전을 병행하며 생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다 신청인은 2015년 경 부터 당뇨병에 걸리게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급여 월 약 66만원으로 생활을 어렵게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신청인이 채무를 변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로 하고 본소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2.16.)

채무자를 면책한다.

임신중절과 입양을 중용한 전 남자친구에 대한 친생자 인지 및 양육비 지급 판결

법률구조 2016-472

담당 : 박네라 변호사

사건명 : 친생자인지 등의 소

내용 : 원고(여, 20세)와 피고(남, 20세)는 2015년 5월경 부터 6개월 간 교제 하다 헤어졌다. 헤어진 후 2016년 1월 초 원고는 임신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에게 원고의 임신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임신 중절수술을 중용하였고, 원고가 수술을 주저하자 원고의 어머니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중절수술을 거부하고, 미혼모 시설에 입소하여 2016년 8월경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다. 원고가 사건본인을 출산한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입양을 중용하거나 양육비만을 지급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원고는 인지,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 청구를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5. 26.)

1. 사건본인은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2.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7. 2. 14.부터 2028. 8. 24.까지는 월 300,000원씩을, 2028. 8. 25.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는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6.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고령으로 인해 경제능력을 상실한 70대 여성에게 면책 결정

법률구조 2016-538

담당 : 박은정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및면책

내용 : 신청인(여, 72세)과 신청인의 배우자(남, 82세)는 고령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사용하게 되었다. 하지만 신청인은 이자도 상환할 능력이 없어 카드돌려막기를 하였고 채무는 갈수록 커져갔다. 결국 2016년 경 신청인이 거주하던 주택이 임의경매로 매각되었고, 경매절차 종료 후 남은 1,300만원으로 현재 거주지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현재 신청인 부부는 자녀들의 도움으로

월 평균 66만원의 지원을 받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신청인의 배우자는 당뇨와 섬유폐질환을 앓고 있는 상황이라 채무까지 변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로 하고 본소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 (서울회생법원 2017.6.16.)

채무자를 면책한다.

**가출하여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남편에 대해
이혼 및 친권자지정 판결**

법률구조 2017-28

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및 친권자지정

내용 : 원고(여, 45세)와 피고(남, 45세)는 2004년 5월 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이며 슬하에 사건본인들(남, 13세, 10세)을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 초부터 외박을 일삼고, 원고에 대하여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사건본인들의 양육에도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급기야 2014년 12월 경 피고는 원고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집을 나갔다. 원고가 경찰서에 피고의 가출신고를 하여 피고는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로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 이후로 한 차례 전화통화가 이루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시댁 식구들 역시 피고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지 못하고 있는 탓에 사실상 별거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원고는 이혼이 되지 않아 한부모 가정으로 지정되지 못한 채 생활고를 겪고 있다. 이에 원고는 이혼을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서울가정법원 2017.5.17.)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가. 2017. 4. 13.부터 사건본인1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나. 2017. 4. 13.부터 사건본인2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외국인 아내를 지속적으로 폭행하여 온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17-30

담당 : 한정윤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27세, 국적 캄보디아)와 피고(남, 53세)는 2012년 2월 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이며, 슬하에 사건본인(여, 5세)을 두었다. 피고는 평소 언어, 생활양식 차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자주 화를 냈다. 심지어 피고는 임신중이던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원고의 형부가 112에 신고한 적도 있다. 원고는 2013년경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는데, 출산 직후 피고가 원고를 30분 넘게 폭행하여, 원고는 112에 신고하였다. 원고는 3일간 여성쉼터에서 지냈지만, 사건본인 때문에 이혼할 생각을 하지 못하여 다시 집에 귀가하였다. 하지만 피고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져 원고는 결국 3일 만에 사건본인을 두고 다시 집을 나왔다. 원고는 집을 나온 지 한 달이 지나 피고에게 전화했으나, 핸드폰 번호를 바꾸어 버렸다. 사건본인이 보고 싶어 2년 후에 시누이에게 전화했으나, 시누이 역시 전화하지 말라고 말하며 끊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7.6.28.)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3. 원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고, 피고는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보다 구체적인 시간, 장소 및 방법은 원고와 피고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조경애 법률구조 1부장

2017년 8월 교육강좌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출장법교육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게임과 퀴즈를 통해 가족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양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며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법의 장벽을 낮추고
시민에 좀 더 다가서는 출장 법교육

- 2017년 9월 9일(토)
- 서울 신촌, 연세로 차없는 거리 「서대문구 사회복지박람회」 내

- ▶ 일 시 : 2017년 9월 9일(토) 10시 ~ 17시
- ▶ 장 소 : 서울 신촌, 연세로 차없는 거리 「서대문구 사회복지박람회」 내
- ▶ 내 용 : 무료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및 교육사업 안내
가족법 퀴즈를 통한 법의식 함양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 교육 실시

- 2017년 9월 14일(목)
- 서울, 코엑스 3층 E홀
- 「100만호 임대주택, 100만개의 꿈과 함께하는 주거복지 컨퍼런스」 내

- ▶ 일 시 : 2017년 9월 14일(목) 10시 ~ 17시
- ▶ 장 소 : 서울, 코엑스 3층 E홀
「100만호 임대주택, 100만개의 꿈과 함께하는 주거복지 컨퍼런스」 내
- ▶ 내 용 : 무료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및 교육사업 안내
가족법 퀴즈를 통한 법의식 함양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 교육 실시
사회적 취약계층 및 일반시민들의 경제적 자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파산·면책·개인회생 등 신용회복과 명의도용피해 방지 등의
법 교육 및 전문상담



비혼모 가정을 위한 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나들이」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에 시달리는 비혼모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심리상담, 그리고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1박2일 자녀동반 캠프

- ▶ 일시 : 2017년 9월 15일(금) ~ 9월 16일(토)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 ▶ 장소 : 용인 에버랜드
- ▶ 내용

1. 「행복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은?' 이란 주제로 소득계층별 주택지원 사업과 청약통장의 활용방법, 영구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의 유형별 청약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등 주거복지 자원 이용과 향후 임대주택 공급 계획 등과 관련한 강의 및 상담

2. 「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 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가정폭력 등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강의와 상담

3. 동반 자녀들을 위한 「무용동작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4. 「용인 에버랜드 체험 활동」

● 후원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이혼 전 상담프로그램-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 프로그램

-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 내용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오후 2시~4시
(8월14일 / 8월28일)
- ▶ 강사 : 김명순 소장 (세은심리상담연구소)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한마음 가족캠프

양성 평등적이고 민주적인 가족문화형성을 위해 온 가족이 참여하여 배우고 즐기는 1박2일 무료 가족동반 프로그램

- ▶ 일시 : 2017년 8월 26일(토) 오후 4시~8월 27일(일) 오후 1시
- ▶ 대상 : 부부 동반 참석이 가능한 신청자
(48개월이상~중학생 미만 자녀 동반 가능)
- ▶ 장소 : 서울 양재동, 더케이(The K)호텔
- ▶ 신청방법 : 전화로 수시 접수 중(참여를 원하는 분은 배우자와 먼저 상의하여 참여의사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이야기-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힐링하기 위한 방법을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알아보는 무료 공개강좌

- ▶ 일시 :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수시접수 가능)
- ▶ 강사 : 김병후 원장(정신과 전문의, 김병후 정신건강 의학과 원장)
- ▶ 일정 및 강의주제

일시	강의제목
8월 24일(목)	마음읽기와 정신적 성숙
9월 28일(목)	전이감정과 부모 세대와의 갈등
10월 26일(목)	자기보호 위한 자기주장과 거절 공포
11월 23일(목)	친밀감, 관계의 유형 그리고 심리적 거리
12월 28일(목)	외도의 유형과 대처 / 임상 예를 통한 부부갈등상담

등지교실

비폭력대화법을 이해하고 실천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강좌

- ▶ 일시 :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3시~5시 (1월은 휴강)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수시접수 가능)
- ▶ 강사 : 캐서린 한 대표, 한승희 강사(한국비폭력대화센터)
- ▶ 일정 및 강의주제

일시	강의제목
8월 10일(목)	성인 자녀와의 대화 : 감사한 마음을 주고받기
9월 14일(목)	부부사이의 대화관계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하기
10월 12일(목)	사춘기 자녀가 “싫어”라고 말할 때
11월 9일(목)	자기강요에서 선택하는 삶으로
12월 14일(목)	축하와 감사로 한해를 마무리하기

●장 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 : 02-782-3601 F :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 E-mail : edu@lawhome.or.kr 트위터 : http://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비혼모 가정을 위한 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나들이’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에 시달리는 비혼모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심리상담, 그리고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1박2일 자녀동반 캠프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이혼 전 상담프로그램-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 프로그램

한마음 가족캠프

양성 평등적이고 민주적인 가족문화형성을 위해 온 가족이 참여하여 배우고 즐기는 1박2일 무료 가족동반 프로그램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이야기-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힐링하기 위한 방법을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알아보는 무료 공개강좌

등지교실

비폭력대화법을 이해하고 실천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강좌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출장법교육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게임과 퀴즈를 통해 가족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양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며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법의 장벽을 낮추고 시민에 좀 더 다가서는 출장 법교육

